

제주사회복지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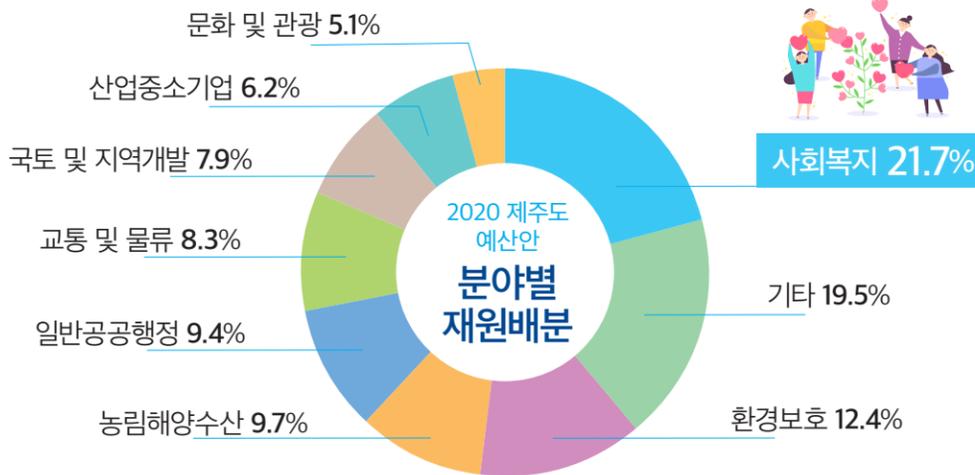
2020년 제주도 사회복지예산안

1조 2,648억 편성... 증가율 11.7% '역대 최대'

제주도가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보다 11.7% 증액된 1조2,648억 원을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12일 활력 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17% 증가한 5조 8,229억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사회복지 재정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이 감소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정과 공존의 기반강화를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제주의 꿈을 키우는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확충 등을 중점



도, 기초연금 1946억 편성...따뜻한 제주 만들기 앞장 노인일자리 사업 399억원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노력

으로 편성했다.

특히 도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21.7%인 1조 2,648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1,322억원(11.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람다운 삶을 누리고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제주'를 위해 기초연금 1,946억원, 아동수당 457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61억원, 의

료급여 진료비 1,081억원, 노인장기요양 보험 303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희망을 주는 제주'를 위해서도 힘쓴다. 도는 청

년의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해 더 큰 내일센터 센터 운영에 58억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에 12억원, 노인일자리사업에 399억원, 생계형 일자리인 공공근로사업에 124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에 전체예산의 21.7%인 1조 2,648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복지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보장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따뜻한 제주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놓음 육아 나눔터를 43곳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여성 일자리 강화로 여성친화도시, 보육 1등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운겨울 김치로 나눔 전해요"

◀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중)는 지난달 23일 제주은행과 신한금융그룹, 협의회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제주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지면소개

- 종합 2면
"난독학생 학교-가정 연계 지도 필요"
- 사회복지소식 4면
어르신 즐거운 일상 위한 민요공연 선배
- 오피니언 6면
어느 미담
- 기획 7면
"제주복지기준선, 돌봄·건강 복지 가장 선호"



사랑에서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무대행 부형중 및 임직원 일동

제주도의회의정소식

“난독학생 학교-가정 연계 지도 필요”

지난달 11일 제주도의회서 포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단장 고경수)은 지난달 11일 도의회에서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난독학생 교육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포럼은 ‘읽고 말하는 뇌의 비밀’을 주제로 이연희 한국정신과학연구소 뇌과학박사가 난독증을 신경생물학적 원인으로부터

출발한 학습장애라고 정의하는 입장에서 신경학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후 강은희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개별 읽기 학습 지원을 통한 난독교육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고은실 의원은 “무엇보다 치료나 지원은 조기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타

당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었다”며 “체계적인 평가와 진단, 언어발달 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난독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이해를 돕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 상담과 연계한 학교와 가정 간의 연계 지도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대장정 돌입

올해 47억 8,200만원 목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지난달 20일을 시작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지난달 20일 제주도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나눔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진>

희망 나눔 캠페인은 연말연시 주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제주도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47억8,200만 원

을 목표로 설정했다.

모금된 성금 전액은 제주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 도내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친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청년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플로베 4호점 개점

일배움터(원장 오영순)는 지난달 7일 청년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4번째 매장 플로베 롯데점을 개점했다. 플로베 롯데점은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장 김주남)와 일배움터가 제주 지역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와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해 체결된 양측의 업무 협약의 결실로 문을 열게 됐다.<사진>

특히 일배움터는 롯데면세점의 친환경 캠페인에 따라 장애인 도예가가 빛잔을 사용하고 친환경 소재 빨대, 냅킨을 사용해 제주

의 청정 환경 보존에도 나선다.

플로베 롯데점은 23㎡의 매장 규모로 중국어 응대 전문 매니저 2명을 비롯해 청년 장애인 바리스타 8명을 신규로 고용했다.

롯데면세점 제주는 카페 공간의 무상 임대를 제공하고 제주 지역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플로베 롯데점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5년 간 70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맞춤형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재단법인 청년재단(이사장 김유선)이 운영하는 ‘청년맞춤제작소 in 제주’는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맞춤형 지원사업’ 참여 청년 3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개인별 맞춤형 취·창업 교육 및 연계 ▲심리상담 ▲자소서, 면접컨설팅, 모의면접 ▲현직자멘토링 ▲식사비, 건강검진비용 등 청년의 삶 전반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설계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진로 및 일자

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미취업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구성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주 15시간 미만은 가능),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취·창업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재단 사업 기참여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yhf.kr)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인터뷰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 청년맞춤제작소 in 제주(064-901-4006).

758@137 푸드마켓 FOOD MARKET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0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돈육 220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 2,867개 ▲(주)쿵스토퍼 제주이도점=빵 282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 151모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라양계=계란15구 160개 ▲대한축산유통=돼지등뼈 120kg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2,751개 ▲뚜레쥬르 제주탐라점=빵 518봉 ▲모양=빵 430봉 ▲미인빵=빵 132봉 ▲바바오름=빵 85봉 ▲비엔뉴아즈=빵 119봉 ▲신제주식품=식료품 11개 ▲이든이네=건어물 6박스 ▲정필이오메기=떡 135개 ▲제주보리춘=보리빵 63개 ▲참새방앗간=떡 991개 ▲파파무베이커리=빵 21개 ▲해맑은 떡방= 158개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9년 10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610,000	43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원봉사후원	405,000	405,000
복지사업후원	985,000	739,810
푸드마켓후원	3,035,000	161,15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봉식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18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고승화 후보 단독출마 제주사회복지사협회장 허순임 후보

제주도내 사회복지계 회장 선거가 잇따르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6일 제8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에는 고승화 후보(63)가 단독 출마했다.

고 후보는 ▲참여확대 및 열리 소통을 통한 만족도 증진 ▲직능단체와의 소통 강화 ▲현장 순화를 통한 분야별 행정과의 정책 간담회 추진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 공개모집 ▲복지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 후보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한국노총제주도지역



▲ 고승화

본부 의장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4일에는 제14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가 치러진다.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장에는 허순임 후보(53)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허 후보는 ▲보수교육 콘텐츠 다양화 ▲단일임금체계 완성 ▲인권옹호센터 설치 ▲복지이음마루를 통한 힐링·문화·공유 공간 운영 ▲2030정책공작소 운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 허순임

허 후보는 현재 제주사회복지사협회장, 사단법인 제주상담센터 부설 트락 원장,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치러진 제33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선거에서는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현회장이 정연보 전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을 제치고 제3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제10회 다문화 축제 '성황'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두호)는 지난달 2일 해녀박물관 야외에서 '제10회 다문화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사진>

이 날 축제는 체험부스, 참여마당, 음식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졌다.

체험부스는 나라별 소개와 물품전시, 전통의상체험, 다문화의상 휴대폰 거치대 만들기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여마당에서는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한 참여자에

게 다문화 열쇠고리를 나누주는 환경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음식문화체험은 센터 소속 결혼이민자 봉사단인 '반딧불이'에서 베트남 전통음식인 짜조(Cha Gio)와 필리핀 뿌또(Puto)를 직접 만들어 홍보했다.

이밖에도 베트남, 중국 등의 나라홍보와 다문화인식 개선사업도 병행해 행사장을 찾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나눔 문화 실천 유공자 수상 잇따라



▲ 이승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중)는 지난달 13일 제주도청에서 이승운씨와 신경란씨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1년부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정기후원자로서 활동해왔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푸드뱅크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매년 물품을 후원하는 등 식품 나눔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 신경란

신 씨는 2016년부터 서귀포지역 기부식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년 100만원 상당의 물품기부와 CMS후원 등 서귀포시 행복나눔푸드마켓 이용자들을 위한 양적이고 실질적인 물품을 기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정정숙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6회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가 지난달 29일 열린 '2019년 제주자원봉사대상'에서 대상을, 금강축산유통(대표 안성)이 기부



▲ 정정숙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 씨는 1989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해 시설봉사는 물론 환경봉사 등 30년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에 놓인 위기여성들을 위한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강축산유통은 2004년부터 제주광역푸드뱅크 후원업체로 지난 15년동안 2억 1000만원 상당의 육가공류를 기부하는 등 다양한 식품 나눔을 전개하고 있다.



▲ 안 성

자원봉사자 팀웍사업 활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중)는 지난달 9일 협의회 임·직원과 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자원봉사자 팀웍강화사업'을 진행했다.<사진>

건강한 마음과 깨끗한 제주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작은세상봉사단, 온누리봉사회, 좋은인연봉사회, 손뜻모아봉사회, 지역사회봉사단 등 5개 봉사단이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

다. 이 날 사업은 산천단 2코스에서 조별로 나눠 자연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숲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등 자원봉사자 간 서로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명예의 전당 등재자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중)는 지난달 7일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사회복지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

당 등재자 선정이 올해 10회째를 맞이함에 따라 등재자모임을 공식적으로 조직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제주도 단위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한우협회, 한우 나눔 실천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안석찬)는 지난달 11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중)가 운영하는 기부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한우 500만원 상

당을 전달했다.<사진>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 상당의 한우 및 육류를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안석찬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제주지역 한우농가와 함께하는 사랑의 한우나눔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⑤

본디소리(문화·예술)

어르신 즐거운 일상 위한 민요공연 선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중)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디소리(대표 김영희)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다원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사진> 이 날 봉사활동은 어르신

들을 위한 인지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직접 디퓨저(방향제)를 만들어보는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본디소리 회원들은 매주 1회씩 제주민요 전수관에서 민요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교육받은 민요를 활용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특히 본디소리는 지난 2018년 12월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된 후 5~6명의 회원들이 매달 1회씩 어르신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 제주민요를 선정, 공연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김영희 대표는 “최근 회원들이 줄어서 봉사활동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원들을 추가로 모집해 봉사단을 정비한 후 내년에 있을 활동을 준비하겠다.”며 “이번 11월 디퓨저 만들기 체험 활동은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싶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랑의 장기기증캠페인 전개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회장 김우찬)는 지난 10월 27일 제주시 벤처마루 앞마당과 탐라문화광장에서 '2019 새 생명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캠페인을 전개했다.<사진>

신장장애인과 제주도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도민과 신장장애인들이 벤처마루 광장부터 탐라문화광장 거리를 행렬하며 장기기증 참여를 홍보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2부 개회식에서는 장기기증·신장이식 수기를 낭독하며 장기기증문화 참여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밖에도 댄스 스포츠 및 음악공연과 함께 장기기증 희망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김우찬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기기증의 중요성과 생명나눔에 대한 사회적·보편적 인식이 도내에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사랑의 제빵봉사 활동 실시

제주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노희섭)는 지난달 9일 사내 봉사단체인 온새미들 봉사단과 직원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제빵봉사'를 실시했다.<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매칭그랜트 사업의 일환으로 매달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마련된 나눔 기금과 공사 예산을 1대1로 매칭해 추진하

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사랑의 제빵봉사는 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해 가족친화형 봉사활동의 의미를 키웠다.

제주에너지공사 온새미들 봉사단과 직원 가족들이 만든 머핀과 쿠키는 흥익아동복지센터에 제공됐다. 흥익아동복지센터는 3세 이상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복지단체이다.

제주청소년 평화축제 성황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고민좌)는 지난달 16일 북수구 광장에서 도내 4개 청소년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2회 제주청소년평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축제는 청소년인권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적어 붙이는 '진실의 방'과 여러 가지 체험, 만들기, 전통놀이 등으로 꾸며졌다. 이와 함께 오픈마이크 공연과 청소년 밴드동아리 '모해', 연극동아리 '데스 파시토', 댄스동아리 '얼,지,조(얼씨구, 지화자, 조타)'의 공연이 더해져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청소년문화기획 네트



워크사업은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미래의 건강한 문화 소비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성꿈장학재단이 후원해 도내 4개 청소년기관과 단체(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카페생느행, 동려청소년학교, 제주시일시이동청소년쉼터 버프)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1사1촌 농촌사랑 봉사활동 진행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본부장 송철희)는 지난달 6일 제주본부 소속 임직원들과 함께 '1사1촌 농촌사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들은 이날 잡초 제거, 하천 정비, 도로 청소 등을 통해 감귤 수확 철 바쁜 농촌마을을 도왔으며 장전리 마

을회에 필요한 집기 및 가구 등을 기부했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 지속적인 이농 현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경마장 인근 애월읍 장전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주기적으로 결연마을 농산물 구매, 마을회 물품 지원, 환경정비 봉사



활동 등의 농촌사랑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풍당당 제주시니어예술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관장 휴완스님)은 오는 12월 6일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대극장에서 '노풍당당 제주시니어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예술제는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복지관에서 배우고 익힌 솜씨를 가족과 이웃에게 선보이는 기회 마련해 건전한

노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예술제는 마술공연과 백록예술단의 제주도속춤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모두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실버합창단, 왈츠, 색소폰 합주로 꾸며지며, 2부에서는 아라초 발레단과

제스카드림리더스의 찬조공연이 더해져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3부에서는 아코디언, 한국무용, 십장생 합주 등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선사한다.

이와함께 고혈압, 당뇨병 체크, 건강관리 안내 홍보, 치매예방 홍보, 치매예방 홍보 부스 등도 운영된다.

유지니 댄스팀 공연 호응



유진주간활동센터·단기거주시설(원장 최은미) 라인댄스 유지니 댄스팀은 지난달 2일 노형동 장애인지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7회 노형동 장애인가족 한마음 축제'에

서 식전 공연행사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사진>

댄스팀은 2014년 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이용인들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인식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식/마/당

(무순)

일상생활 스트레스 해소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지난달 2일 센터 이용자와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힐링데이(Healing Day)'를 실시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지지와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으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 시키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전개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지난달 7일 한마음초등학교(교장 이창화)와 지역내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8일 교내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날 캠페인은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112)를 안내한 뒤 관련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회공헌 활동 펼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법무팀은 지난달 1일 제주시 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예홍)에서 자원봉사 및 5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법무팀은 시각장애인들이 제주의 동서남북을 찾아다니며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재활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동서남북 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연합자원봉사단 창단식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승태)은 지난달 6일 복지관 강당에서 7개 자원봉사단 봉사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자원봉사단 '모다들영'의 창단식을 개최했다.

창단식은 각 단체 소개, 연합자원봉사단 명칭공모전 시상식, 선서문 낭독 등으로 진행 됐으며, 창단식 이후에는 제주올레 17코스 휠체어 올레길로 이동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행복나들이 행사 실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 10월 30일 유수암 경로당 어르신들과 장애인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서커스월드와 코끼리쇼 관람, 점심식사 등으로 진행돼 어르신과 거주 장애인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개관 30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은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복지관 1층 로비 및 평생교육실에서 개관 3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

'우리함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사진전은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시 도약 할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복지관 연혁과 영원히 기억될 30년의 순간들, 영역별 사진을 전시했다.

가상결혼식·신혼여행 진행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 10월 26일과 지난달 7일에 제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Good Lov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상합동결혼식, 가상신혼여행을 각각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성태도와 예절을 통해 건강한 이성교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진행됐다.

가전제품·생필품 전달



젊은 골프인들의 모임(회장 윤성길)은 지난달 15일 사회복지시설인 흥익영아원(시설장 고봉운)을 방문해 3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청소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과 생필품(물티슈, 휴지)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고봉운 흥익영아원 시설장은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따뜻한 온정을 더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상담·교육·정보 제공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는 최근 제주시 삼양2동에서 제주도의회 고현수·현길호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신재활 시설인 볼리션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시설장 김지윤) 개소식을 진행했다.

볼리션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정신 재활훈련과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하게 된다.

종이·한지공예 작품 전시회



희망모아주간활동센터(센터장 강은정)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31일까지 색달커뮤니센터와 서귀포시청에서 종이·한지공예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받아 운영된 발달장애인의 인지·정서지원을 위한 공예 프로그램 '조물락 조물락 happy드림 공방이야기'를 통해 제작된 작품들로 구성됐다.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 10월 31일 제주항만 119센터(센터장 고민석)와 함께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재난 상황 시 행동 요령 안내를 시작으로 안전대피 등의 순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705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후원물품 전달 훈훈



국제로타리3662지구 서귀포중앙로타리클럽(회장 우성룡)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성자현(원장 진유신)을 방문해 사랑 애(愛)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300만원 상당의 의류품을 후원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우성룡 서귀포중앙로타리클럽 회장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성장되어질길 기원한다."고 뜻을 전했다.

시론

어느 미담

전남 구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신고를 받고 파출소에서 최 경사가 출동했다. 처음엔 운전자끼리 말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게 아니었다.

한쪽 운전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길가에 쪼그리고 울고 있고, 남편은 허공에다 거친 손짓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했지만, 입 밖으로 응얼거리는 소리만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랐다는 것. 그들 부부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다. 상대와 대화를 잇는 수단은 오직 수화뿐...

최 경사는 경찰관이 된 지 16

현장서 농아인 부부 만나

년째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 청각장애인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할까 머뭇거리다 퍼뜩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떠올라 얼른 수첩을 꺼냈다는 것. "퍼뜩 수첩에 글로 적어 놓으면 알아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가 많이 놀란 것 같아 혹시 다친 데는 없는지 우선 물어봤지요."

사고는 다행히 크지 않았다. 차량만 조금 훼손됐을 뿐이라 쌍방의 합의 아래 보험처리만

하면 됐다. 두 번째 글을 적었다고 한다. "사고처리는 안하고 보험처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알았어요."라 적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것이다. 곧이어, "아픈 데가 있으면 치료하고 차량은 수리하도록 하세요."라며 필담을 이어 갔다. "보험 접수를 했으니 잠시만 기다리면 보험회사에서 와 차량을 수리해 줄 겁니다."라고 역시 수첩에 적어가며 설명을 덧붙였다.

보험사에서 오기를 기다리며, 어간에 어디로 가던 길이나고 물었다. 전남 곡성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중간에 그만 길을 잘못 들어 구례까지 오게 됐다고. 우리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철철이 열리는 지방 축제에 다니면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꾸린다고 쓰고 있었다.

최 경사는 보험처리를 도왔다. "축제 장소로 가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사고가 나서 어떡하면 좋으냐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끝으로 그들 부부에게 "혹시 보험처리가 힘들거나 불만족스러우면 언제든지 파출소로 연락해 주세요. 조금도 어렵게 생각지 말고요. 그러면 제가 힘껏 사고처리를 돕겠습니다."라고 그들 휴대전화에 연락처를 남겼다. 눈물 그렁그

렁한 채 서둘러 차에 오르는 그들 놓아 부부였다.

인터뷰를 꺼리던 최 경사, 신

세상 속 따뜻한 온정 남아

문과의 통화에서 한마디 하고 있었다. "이건 아닌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찰 생활을 하다 보니 청소년,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이주 여성들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성실하고 올곧게 살아가는 청각장애인 부부에게서 외려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고 했다. 훈훈한 마음이 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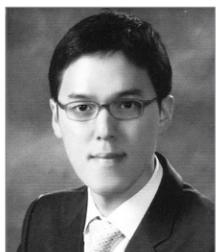
또 한 해가 저문다. 세밑을 맞아 주변을 둘러본다. 메마르다 험하다 투덜대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김길웅
본지 편집위원·수필가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65

신중 보이스피싱 주의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최근 제주지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후 대출금 및 예금 등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사기범은 'OO불 해외 결제'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마치 카드회사인 것처럼 전화를 받은 후 카드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하였으니 경찰로 이첩할 것임을 안내하여 112경찰서로 속이고 전화를 하였고 다시 금감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재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스마트폰에 특수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설치된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카드사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는 방식 및 예금의 계좌이체를 통해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의심스러운 휴대폰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금융거래 조치

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본인의 휴대폰을 사용하기 보다는 유선전화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하였다면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칼럼

가정의 가치 정립할 때

가정마다 맞벌이 부부가 대세이다. 모두가 생활전선에 뛰어든다. 어찌면 함께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가족끼리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하다. 한 지붕 밑에서 너는 너, 나는 나 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되면 가족의 결속은 날이 갈수록 단절된다. 더 나아가 가정불화로 나타난다. 심지어는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가 하나둘씩 해체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은 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다.

가정의 붕괴는 유독 제주가 많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2.4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세종시 1.6건에 비해 0.8건이 많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혼이 가장 많다.

이혼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조직까지 생겼다. 제주지법의 '가사과' 신설이다. 가사사건 업무량 증가로 기존의 민사과 소속에서 별도의 부서로 확대했다. 그로 인해 1명의 전담판사 인력을 2명으로 늘렸다. 그만큼 미성년자녀 양육권 문제 등 가족 구성원간 분쟁 업무가 많다.

가출청소년 범죄위험 노출

가정의 이혼은 청소년 가출로도 이어진다. 물론 청소년 가출 원인은 비단 가정 붕괴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가정불화나 사춘기 반항심, 가출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유인적 요인 등 다양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소년 가출 대부분이 가정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이 가출한 경험은 3.1%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조사 때 1.2%보다 1.9%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가출의 주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이다. 무려 69.1%에 이른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가 14.5%,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7.7%의 순이다.

청소년 가출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자칫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생활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숙식을 해결해야 하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청소년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 이의 문제는 결국 사회가 떠안아야 한다.

이제 이런 악순환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다. 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가정의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사랑의 샘터가 곧 가정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당장 가정의 가치정립운동을 펼쳐야 할 때이다.



한영조
제주숲치유연구센터 대표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한 150인 도민 토론회

· 주 최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일시·장소 : 11월 12일(14:00)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복지기준선 돌봄 분야 선호도 가장 높아”

지역사회가 더 이상 국가의 제도적 복지서비스 수요자가 아닌 공급주체로 전환되면서 각 지역 환경에 맞는 ‘복지기준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복지지형의 여건을 반영해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광역단체 10곳과 시군구 3곳에서도 복지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이에 발맞춰 내년부터 ‘제주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김정득)는 지난달 12일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뜻뜻한 제주,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한 150인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결과 도민들이 생각하는 ‘복지기준선’에 대한 의견을 요약해 정리했다.<편집자 주>

이번 원탁토론회는 코리아스픽스(주)(대표이사 이병덕)의 진행으로 1토론과 2토론으로 이뤄졌다.

먼저 1토론은 ‘도민이 말하는 복지기준선’을 주제로 제주복지기준선에 포함된 9가지 복지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와 그 분야의 세부전략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복지기준선은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사회서비스인 돌봄·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7개 항목에서 제주 상황에 맞는 소득과 안전을 추가한 9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복지 분야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복지가 28.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건강복지가 13.9%, 고용 복지가 12.1%, 교육 복지가 9.7%, 주거복지가 7.8%, 소득복지가 7.2%, 여가문화복지가 7.2%, 환경복지가 6.6%, 안전복지가 6.0%, 기타복지가 1.2%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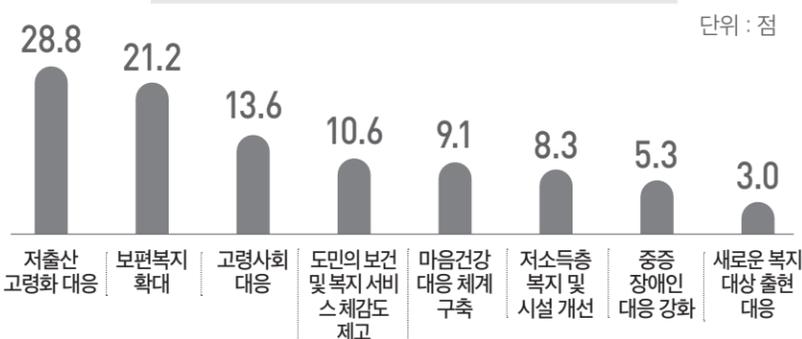
특히 돌봄복지의 경우 사전투표 결과에서도 1순위로 뽑히면서 도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분야별 세부전략 투표 결과 돌봄복지 분야는 고령자 통합 돌봄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24.3%로 가장 높았고 돌봄 사각지대(영유아, 65세 이상 장애인) 해소가 18.8%, 복지정보 원스톱 DB구축이 18.1% 아이 돌봄 전문성 및 시간 강화가 13.2%, 돌봄 지역격차 해소가 6.9% 무연금 은퇴

복지선호분야 결과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 사업



사회복지연구센터 지난달 12일 메종글래드 제주서 복지 체감도 높이기 위한 통합복지서비스 확대 필요

자 생활안정방안이 4.9% 고령인구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 완화가 3.5%로 조사됐다.

이어 건강복지 분야는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가 36.8%로 제일 높았고 마음 건강관리 강화 및 인프라 개선이 34.7%, 고령사회 대응 강화가 23.6% 안전한 먹거리가 4.9%로 뒤를 이었다.

고용복지 분야는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적정 일자리 개발이 37.5%,

취업기회 공정성 확보가 22.2%, 제주형 기업 설립 촉진이 20.1%, 동일직종 동일임금이 17.4% 관광사업 카르텔 해소가 2.8%로 집계됐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타도시보다 월등한 월세부담 완화 방안이 39.3%, 1인 가구 등 주거변화에 맞게 매뉴얼 개선이 33.8%, 아동안전 주거환경 기준 마련이 23.4%, 섬 지역 비탈길 보행 개선이 3.4%

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 사업 선정을 주제로 진행된 2토론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업이 28.8%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보편복지 확대가 21.2%, 고령사회 대응이 13.6%, 도민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체감도 제고가 10.6% 마음건강 대응 체계 구축이 9.1%, 저소득층 복지 및 시설 개선 8.3% 중증 장애인 대응 강화가 5.3% 새로운 복지대상 출현 대응이 3.0%로 나타났다.

이밖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 투입대상에는 노인이 32.1%로 가장 높았고, 아동청소년이 27.9%, 일반도민 등이 22.9%, 장애인이 11.4%, 수급자가 5.7%로 조사됐다.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통합복지서비스 확대가 34.3%, 사회보장예산 확대가 18.7%, 기존 서비스 홍보 강화가 17.9%,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가 14.9%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영역에서는 인력증원이 44.0%, 세부 프로그램 확대가 29.1% 인프라 확대가 26.9%로 나왔고, 새로운 복지대상 출현에 대한 대응으로는 새로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대상지정 개선이 31.5% 아동학대 가족 치유 및 아동보호가 22.8%, 60대 취업 및 여가 프로그램 강화가 22.0% 등으로 집계됐다.



▲ 지난달 12일 메종글래드 제주 2층 크리스탈홀에서 뜻뜻한 제주,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한 150인 도민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 진행 모습

시설탐방

(110)보목지역아동센터

편안하고 행복한 튼튼한 울타리 제공

2006년 설립...현재 29명 이용

“아이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보목지역아동센터(센터장 한미옥)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2006년 문을 열었다.

센터는 ‘강한 자립의지에 기초한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으로 행복한 보목동 아이들을 미션으로 설정해,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 원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며 “지역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센터에서는 올해 목표를 ‘함께하는 우리’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분기별 생일파티와 5대 안전의무교육 등의 보호프로그램과 교과학습, 독서지도,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교실 등의 교육프로그

램, 초록우산문화예술학교와 요리교실, 만원의 행복 등 정서지원프로그램, 영화 관람과 숲 체험 등의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초록우산문화예술학교는 9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 당시 문화해택이 열악했던 서귀포시 지역 아동들에게 악기를 통해 자존감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문화예술학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직원 수 부족...공백 메우기 어려움 토로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처음엔 악기가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악기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실력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제주특



▲ 보목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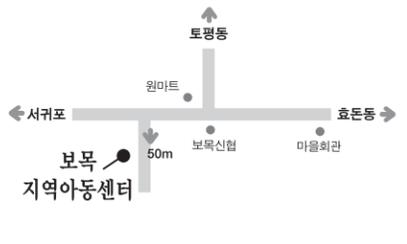
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서귀포시지회와 함께 제7회 정기연주회 ‘해군제7기동전단과 함께하는 사랑나눔의 하모니’에서 공연을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센터의 노력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를 바라보는 편견이 사라지면서 센터를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늘어

해 최소 3명이상의 상근종사자가 필요하다.

한 원장은“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센터장과 생활복지사가 10여 년이라는 세월동안 그만두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 같다.”며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 센터 아이들도 퇴소를 한 아이들도 언제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 서로 자연스럽게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만을 위한 전용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가게 될 사회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다.”고 밝혔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소개 ⑤ 아가곶드래

“품질 높은 제품으로 고객 만족도 높여”

제주에는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호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 확대를 돕고자 시설과 함께 주요 생산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아가곶드래’를 소개한다.

▲ 아가곶드래 소개

아가곶드래(원장 이민숙)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 가치를 담은 제품생산 ‘감동을 실현하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비전으로 지역 내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이다.

▲ 기념품

아가곶드래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중증장애인의 손을 거쳐 제

작된다.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만큼 꼼꼼한 검수로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아가곶드래는 UV프린터(2대)와 실크자동인쇄기(3대), 열전사기, 디지털 라벨기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제품에 깔끔한 인쇄가 가능하다.

아가곶드래에서는 기관별 홍보 목적에 맞춘 에코백, 텀블러, 무선 이어폰, 수건 등 다양한 홍보판촉물과 각종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패와 상장, 트로피등 품질이 높은 제품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현수막

아가곶드래의 현수막은 투코팅을 사용해 발색이 좋고 햇빛에 강



▲ 왼쪽부터 일반상패, 판촉물, 현수막과 각종 실사출력물.

하다. 특히 고소작업트럭을 보유하고 있어 3층 이내 건물외벽이나 계시대 등의 고소작업이 추가비용 없이 가능하다.

또한 실사출력물(시트지, 차량광고, 배너 등)의 경우 자동재단기와 커팅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출력물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판(입간판, 표찰, 현판, 대형매뉴판 등)은 포맥스, 폼보드, 아크릴 등을 활용하거나 유리, 벽면 등 실내·외에 직접 부착하는 모든

광고물과 디스플레이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안내판 제작에 켈지(PVC)만을 사용해 햇빛에 강하고 활용시간이 길며, 설치와 철거 시 잔여물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아가곶드래 생산제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배송·설치 서비스는 무료다. 기념품·현수막 관련 문의는 전화(기념품 064-783-9920, 현수막 064-782-9920)로 하면 된다.